

미국의 예술분야 예비교사 수행평가를 위해 개발된 edTPA K-12 Performing arts의 내용 분석

최 은 아*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예술분야 예비교사 수행 평가를 위해 개발된 edTPA K-12 Performing arts[edTPA-arts]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교사 평가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전문성과 edTPA의 목적 및 개발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edTPA-arts의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분석하였다. edTPA-arts는 교실현장을 중심으로 예비교사의 수업수행능력을 양성·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적인 수업결과물(artifacts)과 반성적 기록물(commentaries)의 제출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edTPA-arts는 교실 현장 중심, 학생 배움 중심, 반성적 사고 중심의 교육·평가를 통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음악예비교사를 양성·선발해야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edTPA, 예비교사 평가, 수업전문성, 실천적 지식, 반성적 사고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의 기초
 - 1. 수업 전문성
 - 2. edTPA의 목적 및 개발 과정
- III. edTPA K-12 Performing arts의 구성
 - 1. 세 가지 과제
 - 2. 각 과제 수행의 단계
- IV. edTPA K-12 Performing arts의 내용
 - 1. 수업과 평가를 위한 계획
 - 2. 수업 실행과 학생의 학습 참여
 - 3. 학생의 배움 평가
- V. 시사점 및 결론

* 서울 신구로초등학교 교사

I. 서론

공교육의 질적 제고(提高)를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는 공정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일이다. 수업전문성이란 “수업의 계획, 전개, 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활동을 안정성 있고 역동성 있게 전개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태도에 관한 모든 능력”(조호제, 윤근영, 2009)을 뜻하는 것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자 공교육의 질(質)을 결정하는 핵심변인이다. 따라서 장차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한편 이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를 평가·선발하는 일은 공교육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수업전문성은 교사가 실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전문성이 교사전문성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현장중심의 교사수행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최은식, 2006; 석문주, 2008; 조성기, 2010; 이화식, 2012; 정재은, 2012; 이정표 외, 2013), 교사임용제도 또한 객관식 시험보다는 실제적 수업시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¹⁾ 그러나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전문성의 구성요인 및 평가 방법,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어왔으며 계속적인 논의의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미국에서 예비교사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edTPA(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는 우리나라의 예비 교사 수행평가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SCALE(Stanford Center for Assessment, Learning and Equity)과 AACTE(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의 주도하에 개발된 edTPA는 미국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국가 차원의 평가 과정으로, 2년간 12,000 여명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현장시험(field testing)을 통해 2013년 최종 개발·발표되었다. edTPA는 예비교사가 실제적인 교실현장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학적·교과적 지식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실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업영상·수업 계획서 및 평가 자료·학생예시작품·피드백 자료 등의 수업결과물(artifacts)과 자신의 수업 과정에

1) 현행 교사임용시험은 201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사신규채용 개선방안’에 따라 교직 및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등에 대하여 논술하는 1단계와 심층면접, 수업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능력 평가 등의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 반성적 기록물(commentaries)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dTPA는 또한 각 교과 중심(subject-specific)의 평가체제로서, 교과 영역 및 교육 대상에 따라 27개의 버전으로 구체화되어있는데, 음악교과는 K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공연예술 분야(music · dance · theatre)와 관련된 edTPA K-12 Performing arts[이하 edTPA-arts]에 포함되어있다. 일반적인 교수-학습 이론들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한편 예술과목이 갖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edTPA-arts는 학생들의 ‘예술적 기능(artistic skills)’ · ‘지식(knowledge)’ ·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s)’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비교사의 수업실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전문성과 edTPA의 목적 및 개발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edTPA-arts의 구성 및 내용을 고찰·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음악예비교사 평가과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기초

1. 수업 전문성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핵심은 수업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에 있다. 수업이란 본질적으로 역동적 과정으로서, 교사의 계획적 · 의도적 측면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발생하는 우연적 · 돌발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다변적 · 다층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우연적 · 돌발적 측면이 더 우세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이론적 지식보다 역동적 현장에서 획득한 실천적 지식과 실천에 대한 반성적 사고력이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왔다.

슐만(Schulman, 1987)이 교사가 갖추어야할 지식을 7가지로 분류하고,²⁾ 이 중에서 교수법적 내용지식이 교사의 전문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것에는 이러한 맥락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교수법적 내용 지식은 교과내용

2)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수법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일반적 교육학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학습자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learners), 교육적 맥락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 교육과정지식(curricular knowledge), 교육의 역사적 · 철학적 목표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the philosophical and historial aims of education).

지식·교육학적 지식·상황적 지식 등의 화학적 작용 및 교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으로서, 교사의 독특한 지식이다. 술만은 또한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의무, 이론적 이해, 숙련된 수행,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이론과 실체가 연계된 경험을 통한 학습, 전문가 집단 등의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Schulman, 1998; Sato, 2014에서 재인용), 이 중 이론과 실체가 연계된 경험을 통한 학습은 교수법적 내용지식형성의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교과의 특성과 수업 상황을 연결하는 방식이 강조된 교수법적 내용지식은 또한 실제적인 수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과 연계된다. 실천적 지식이란 교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그가 관계하는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한 지식이다. van Driel 등(2001)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교사들이 교수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 발달시키는 지식, 개념화, 신념, 가치 등이 통합된 것으로서, 교수법적 내용지식은 실천적 지식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김찬중, 2009, p. 71에서 재인용).

또한 이와 같은 교수법적 내용지식과 실천적 지식은 자신의 실천을 성찰하고 상황을 재해석하여 개선해나가도록 이끄는 반성적 사고력을 통해 발달한다. Schön(1983)에 따르면, 전문가란 “독특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실천하는 사람”이며, 반성이란 “일반화할 수 없는 독특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천행위,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인이다. 반성은 “경험, 문제 또는 현존하는 지식과 통찰을 구조화하려고 노력하는 정신적 과정이자 경험을 역동적 지식으로 해석하는 도구”(Korthagen, 2001)로써, 수업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은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수업전문성의 필수요건인 것이다.

음악과에서도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및 실천적 지식과 반성적 실천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임찬빈·이경언(2006)은 음악과 수업평가 매뉴얼을 통해 수업전문성의 기준을 지식, 계획, 실천, 전문성의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음악적 능력과 함께 교과 내용 및 방법과 학생들에 대한 지식, 수업을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는 활동과 더불어 수업 개선을 위해 동료교사와 협력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석문주(2008)는 교사는 실제 교실 경험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탐구하고 연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으

며, 교사의 전문지식에 있어 핵심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형성하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오지향(2012)은 예비음악교사가 수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식 형성을 위한 경험이 많이 제공되어야함을 주장하였으며, 정재은(2013)은 교사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천적 경험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 능력 함양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교사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교실상황에서 수업을 실행함과 동시에 교사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수업을 새롭게 변화시켜나가는 실천가이다. 따라서 예비 교사가 실천적 수업전문성을 양성·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실행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경험의 체계적 제공과 함께 이러한 활동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반 장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2. edTPA의 목적 및 개발 과정

1) edTPA의 목적

예비교사의 수행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edTPA의 개발 목적과 이에 따른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http://edtpa.aacte.org>).

<목적>

첫째, 학생의 배움 증진.

둘째, 교사양성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기반 마련.

셋째, 교사양성프로그램 효과의 인증과 평가를 위한 정보 기반 강화.

넷째, 면허증 교부를 위해 요구되는 다른 기준들과의 연계.

다섯째, 교사 전문성 향상.

<세부목표>

첫째,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확신과 기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각 주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단일화된 근거 기반(evidence-based) 과정을 제공한다.

셋째, 영어학습자와 특수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수업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넷째, 교사 자격증 교부와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교사양성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여섯째, 각 주와 학교위원회, 교사양성프로그램이 수업수행 평가의 범위와 측정을 위한 공통의 형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 수행의 국가적 기준 수립을 위한 실제적 근거를 마련한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CALE은 edTPA의 첫 번째 목적으로 학생의 배움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Sato(2014)는 술만이 제시한 전문가의 6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edTPA가 학생의 배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전문가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예시라고 하였다. 이전의 교사교육이나 평가가 예비교사의 지식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있던 반면, edTPA는 교육이 학생들에 대한 봉사와 노력임을 강조하며, 예비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는 학생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예비교사 평가의 기본 전제임을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edTPA의 개발 목적은 예비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 SCALE는 edTPA의 개발 목적이 수업수행과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지원하고, 실제세계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을 피드백해줌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실천적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 단계로의 입문을 돕는 것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문성이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지식과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대중의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자격부여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edTPA는 예비교사 수행기준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형식을 공유하고, 교사양성프로그램과 자격부여를 위한 근거기반 - 교사수행의 국가적 기준 수립을 위한 실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개발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2) edTPA의 개발 과정

예비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개발된 edTPA는 기존의 미국 교사 수행평가과정인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NBPTS)에 뿌리를 두고 있다. NBPTS는 국가 수준의 교사 평가를 위한 첫 번째 조직으로, 1994년 이래 교사의 수행평가를 담당해왔다. NBPTS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수업을 담은 비디오, 교사에 의해 분석된

학생 작품, 티칭 실제에 대한 교사 자신의 분석, 교사로서의 리더쉽 및 전문적 작업에 대한 추천서, 지필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NBPTS는 일상적인 교실 현장에 근거한 교육적인 평가과정이 가능함을 입증했으며, 이후 각 주나 교육기관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NBPTS와 유사한 수행평가를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예비교사에 대한 평가는 각 주나 교육기관별로 분리되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교육자들은 각 주 또는 국가적으로 공통된 목표나 과정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Sato, 2014).

스탠퍼드(Stanford) 대학의 한 팀에 의해 개발된 Performance Assessment for California(PACT)는 NBPTS와 함께 edTPA의 기반이 된 평가과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사평가과정인 PACT는 NBPTS와 같이 교실 비디오, 학생 작품, 티칭 분석 등을 평가에 사용하였으나, NBPTS와는 달리 지필 시험이나 교실 밖의 전문성이나 리더십에 대한 추천서는 배제하였다(Sato, 2014). PACT는 학생들의 작업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대한 교사의 분석에 기초하여, 이론적 지식이나 교실 밖의 추천서보다는 교실에서의 수업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 보다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AACTE와 SCALE에 의해 주도된 edTPA의 개발은 NBPTS와 PACT와 같은 기존의 교사 수행평가과정과 각 교육기관이나 주별로 실시되어온 예비교사 평가과정이 있었기에 보다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다. NBPTS와 PACT와 같은 관점에서 개발된 edTPA는 실제적인 교실현장에서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영상, 학생 작품, 수업 실제에 대한 예비 교사 자신의 분석과 성찰이 담긴 글쓰기 등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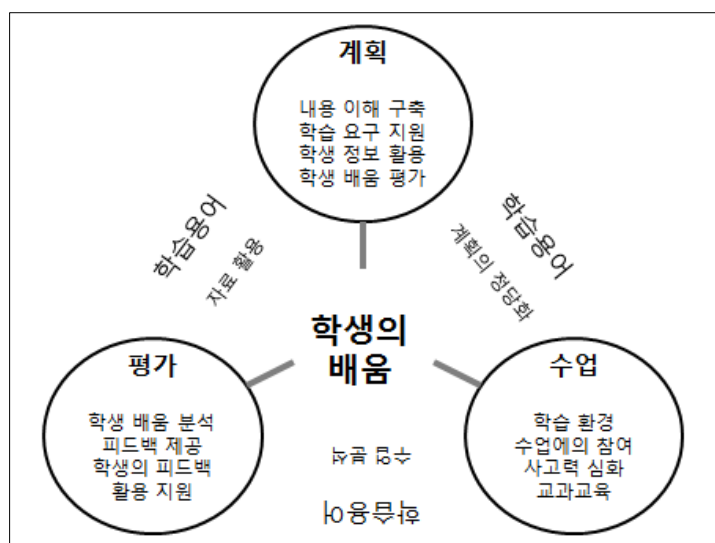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edTPA는 2013년의 최종 발표 전, 2년 넘게 12,000 여명의 예비교사들에게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현장시험을 통해 얻은 정보는 평가 과제, 루브릭(rubric), 예비교사 핸드북 등을 재조정하고, 수행 기준이나 합격점을 결정하는데 활용되었다. 현재 일리노이(Illinois)와 하와이(Hawaii)를 비롯한 11개 주는 이미 edTPA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오하이오(Ohio)와 앨라배마(Alabama)는 edTPA의 공식적 시행을 위해 정책입안자들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플로리다(Florida)를 비롯한 20개 주는 edTPA의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탐구하는 단계에 놓여있다(<http://edtpa.aacte.org>).

Ⅲ. edTPA K-12 Performing arts의 구성

본장에서는 음악교사에 대한 수행평가가 포함된 edTPA-arts의 구성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edTPA-arts는 크게 교수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과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3단계 과정과 평가기준으로 나누어져있다.

1. 세 가지 과제

edTPA-arts는 예비교사가 수행해야할 세 가지 과제로서 계획(planning), 수업(instruction), 평가(assessment)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edTPA-arts의 세 가지 과제(SCALE, 201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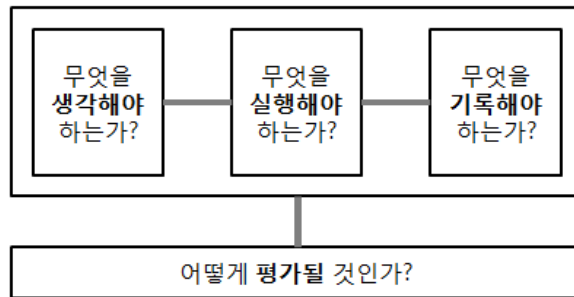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교사의 수업활동은 수업 설계에서 비롯되어, 설계된 수업을 실행하고, 수업실행 후 학습 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평가 결과를 다음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edTPA-arts에서 제시한 세 가지 과제는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edTPA-arts는 계획-수업-평가의 3단계 순환 체계의

중심에 ‘학생의 배움’(student learning)을 놓음으로써, 이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edTPA-arts의 3단계 순환 체계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은 학습용어(Academic language)이다. edTPA-arts는 학생들의 교과 내용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용어의 사용과 습득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학습용어 사용여부를 배움증진의 중요한 척도로 여긴다. edTPA-arts는 언어의 기능을 ‘분석(Analyze), 비교/대조(Compare/contrast), 묘사(Describe), 설명(Explain), 표현(Express), 확인(Identify), 해석(Interpret), 수행(Perform), 요약(Summarize), 종합(Synthesize)’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어는 교과와 함께 사고의 단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비교사는 교과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사고력 발달을 돕기 위해 각 수업의 중심초점(central focus) 및 핵심 개념과 학습 발달에 따라 학생들이 습득해야할 학습용어를 선택하고 이를 사용할 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2. 각 과제 수행의 단계

edTPA-arts는 예비교사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위의 각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평가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edTPA-arts의 각 과제 수행의 단계

우선 edTPA의 각 과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계획-수업-평가>의 과제수행을 위해 예비교사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 각 과정의 두 단계를 통해 예비교사는 수업계획, 녹화자료, 평가자료, 교수자료, 학생

활동 예시 등의 수업 결과물(artifacts)을 준비하고 제출해야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교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하고 행한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자세하게 제시되어있다. 이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수업의 목표나 활동, 자료 등에 대한 기술과 함께 선택의 근거를 맥락적·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자신의 티칭과 학생의 배움에 대하여 분석하고 성찰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제출해야한다. 수업 결과물이 교사의 수업이 학생의 배움에 끼친 영향 및 배움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기록물은 수업을 통한 교사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edTPA는 이와 같은 과정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하여, 과제별로 5개씩 총 15개의 5단계 루브릭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루브릭은 단지 평가를 위한 것뿐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코멘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달해야할 상태가 어떠한지, 도달하기 위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IV. edTPA K-12 Performing arts의 내용

1. 수업과 평가를 위한 계획

<표 1> 수업과 평가를 위한 계획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할 수 있는 것·배우고 있는 것 ·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배워야할 핵심개념 · 학생들의 학습과 용어사용을 위해 필요한 교수 전략·학습 과제·평가의 설계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나의 학급 선택 후, 맥락적 정보 조사·기입 · 수행평가를 위한 수업부분 선택 및 중심초점(central focus) 설정 · 핵심적인 학습 언어 선택 · 수업 계획 작성·제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 중심초점 · 학생에 대한 지식 · 예술학습 지원 · 학습언어의 사용 전략 · 학생의 배움 점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학생의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는가? ·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지식을 사용하는가? · 예술학습 과제와 연관된 언어를 확인하고 지지하는가? · 학생들의 배움을 관찰하고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계획하였는가?

무엇보다 edTPA-arts에서 계획 과정의 초점은 학생에 대한 지식에 맞춰져있다. 예비교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나의 학급을 선택하여 학교, 학급, 학생에 대한 맥락적 정보를 조사하고 주어진 양식에 기입해야 하는데,³⁾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수정(modification)이 요구되는 다양한 학습자의 명단 (영어학습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 IEPs나 509plan⁴⁾을 가진 학생, 난독학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등"을 기록해야한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수업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전략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수업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수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내용기준 및 목표에 따라 수업의 '중심초점(central focus)'을 설정하는 일이다. 중심 초점은 개념적 이해발달을 위한 사실과 단편적 기술 습득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 경험·문화적 배경·실제적 관심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개념 및 용어사용, 교수전략과 평가 등 수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예비교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한편, 배움과 관련된 학생의 현재 상태 및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업의 중심초점을 설정 한 후에는 평가의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심초점 내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할 학습언어를 선택해야 하며, 3-5개의 연속적인 수업의 흐름 속에서 작성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수업 목표 및 활동과 함께 예술과목과 관하여 각 주(State)에 적용된 학습 내용 기준이나 국가기준, 학습 목표, 형식적·비형식적 평가, 교수전략과 학습 과제, 교수의 출처와 자료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기록'의 단계에서는 수업의 중심초점, 학생에 관한 지식, 학생의 배움 지원 방안 및 배움에 대한 평가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한다. 이와 같은 기록은 예비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성 요소의 하나로서 이론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수업전문성의 무게중심은 수업실행에 주어지지만 수업설정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지식이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수업의 중심초점과 목적은 그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서술해야하며, 중심초점 내에서 수업의 기준과 학습 목표가 자기

3) edTPA-arts은 부록에 맥락적 정보를 기입할 양식인 "K-12 Performing Arts Context for Learning Information"을 첨부하고 있다.

4) Section 504 in Rehabilitation Act of 1973 :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주요 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표현력, 창의성, 즉흥성 등의 예술적 기능, 악기, 기술적 숙련도, 과정, 요소, 원리 등에 대한 지식, 사회·문화·역사·세계·개인적 성찰 등의 맥락적 이해를 담아 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심초점과 관련된 학생들의 기습내용과 개인적·문화적·공동체적 지식 및 학생들의 일상 경험·문화적 배경·실제적 관심들을 적어야하며, 학생들에 대한 지식이 학습과제의 선택과 적용에 끼친 영향과 선택한 학습과제가 전체 학급과 각 개인들 특히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계획을 적을 때에도 단순히 평가 계획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평가계획이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와 특히 특수학생들의 배움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방법을 어떻게 적합화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업 목표와 내용 설정의 이유 등을 자세하게 적어야하며,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예비교사의 이론적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논리적 사고력 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수업 실행과 학생의 학습 참여

<표 2> 수업 실행과 학생의 학습 참여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 존경·레포 형성·학생들의 학습참여를 위한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 학생들을 중심초점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제 · 내용 이해도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방법 · 학생들의 기습 내용 및 개인적·문화적·공동체적 지식과 새로운 내용의 연계 전략 ·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본 수업 결과물의 활용 방법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녹화를 위한 승인 · 수업계획 검토 및 녹화를 위한 부분 확인 · 녹화 및 제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 긍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방법 및 과정 · 학생들의 학습 참여 유도 방법 및 과정 · 학생들의 학습 이해 향상을 위한 반응 유도·촉진 방법 및 과정 · 교수 실제 분석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학생들이 배움에 참여하도록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 예술적 기능과 지식, 맥락적 이해를 위한 배움에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고무시키고 있는가? · 예술적 기능과 지식, 맥락적 이해 증진을 위해 교과와 특성에 따라 모델링, 자료제시, 내용의 예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수업 실재를 어떻게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다음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edTPA-arts의 수업 과제에서 예비교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edTPA-arts는 예비교사가 지식의 전달자 보다는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학습 촉진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학생 또한 수동적 학습자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는 학습자가 되기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는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중심초점으로 이끌 학습과제를 선정해야한다.

수업 ‘실행’의 단계에서 예비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수업부분을 녹화하여 제출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녹화자료는 예비교사가 실제세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해야할 것은 10분 길이의 2개의 비디오 클립인데, 20분의 동영상 속에 예술적 기술, 지식, 맥락적 이해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다 담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개의 비디오 중 첫 번째 비디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두 번째 비디오는 학생들의 배움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edTPA-arts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갖추어야할 책무의 하나로 녹화 전에 녹화를 위한 승인을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⁵⁾

‘기록’의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학습 환경 조성, 학생들의 참여 및 반응 유도, 티칭 분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야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은 예비교사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실천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성적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장(場)이다. 예비교사는 이 단계에서 다양한 요구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나타내었으며 어떻게 래포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어 ‘학생들의 기습 지식 및 기능과 개인적·문화적·공동체적 자산을 새로운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한 계획 단계에서의 방안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예술적 기능·지식·맥락적 이해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켰는지’, ‘공연·연습·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등 자신들의 구체적 실천과정에 대해 반성적으로 기술해야한다.

5) SCALE은 edTPA의 Handbook에 edTPA를 수행하는 예비교사가 갖추어야할 전문적 책무들(Professional Responsibilities)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책무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비밀 엄수(Protect confidentiality), 사전 허가 획득(Acquire permission), 자료 인용(Cite sources), 국가공통핵심기준과의 연계(Align instruction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edTPA 웹사이트에 제시된 예비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Follow the guidelines for candidate support at www.edTPA.com)

또한 예비교사는 중심초점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에 어떠한 변화를 가했는가를 기록해야한다. 이는 예비교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반응 등 상황에 따라 수정을 가할 수 있는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변화가 왜 학생들의 배움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증거자료와 이론의 원리, 연구 등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수업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실행이 학생들의 배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더 나은 수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edTPA-arts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전문성의 주요 요소인 것이다.

3. 학생의 배움 평가

<표 3> 학생의 배움 평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 증거 자료 수집방법 ·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 방법 · 다음 수업 계획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 자료의 활용 방법 · 학생들의 학습 언어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생들의 지식과 기능에 대한 평가방법 결정 및 평가기준 설정 · 학생 작품 수집·분석 후, 3개의 학생 예시 작품 선택 ·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평가 실시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 학생들의 배움 분석 · 보다 나은 학습을 안내할 피드백 · 언어 이해 및 사용에 대한 증거 ·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의 사용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학생의 배움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 초점이 되는 학생들(학생 예시 작품을 제출한 3명의 학생)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피드백하였는가? · 초점이 되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자료 활용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 내용이해 발달을 위해 학생들의 언어사용을 어떻게 분석하였는가? · 학생들이 아는 것과 다음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하였는가?

edTPA-arts의 평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배움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형성평가, 단원평가, 비형식적 평가, 형식적 평가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학생작품을 수집·분석하여, 3개의 학생 예시 작품을 제출해야한다. 이들 3개의 작품은 상위 그룹(high achievement), 중위 그룹(average achievement),

하위 그룹(generally lower achievement) 각각에서 하나씩 선정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3가지 예시작품을 선택하고, 각각에 대한 피드백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학생의 배움을 평가하되 그 평가가 양적으로 수치화된 결과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평가 단계에서 기록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배움 분석, 보다 나은 학습을 안내할 피드백, 학습언어 이해 및 사용, 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 사용 방법 등이다. 예비교사는 분석할 수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 확인하고, 학생의 배움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의 근거와 함께 학생의 배움을 요약하는 도표나 내러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술적 기술, 지식, 맥락적 이해를 적용함으로써 음악·춤·연극에 대하여 만들고 공연하고 향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체 학급, 각 그룹이나 개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3개의 학생 작품 예시와 전체 학급에 대한 요약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교사는 학생들이 내용 이해 향상을 위해 학습언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배움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고, 다음 수업을 위하여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 예비교사는 전체 학생, 예시작품을 제출한 3명의 학생, 특수 학생들로 나누어 그들이 성취한 배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에서 할 일을 기술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전략이나 지원이 요구되는 특수학생들, 즉 IEP를 가진 학생들,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 학문적 지식 이해가 느린 학생들, 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 등이 이해하는 것과 잘 하는 것,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 공통된 실수나 약점, 혼돈을 느끼는 것, 보다 나은 도전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을 깊이 고려하여 서술하는 것은 ed-TPA의 강조점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다음 수업이 학생의 배움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연구나 이론에서 도출된 원리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심하고 상세한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이론적 지식, 학생들에 대한 배려, 숙련된 수행,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반성적 사고력 등 자신이 갖추고 있는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V.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edTPA-arts의 내용은 음악예비교사 평가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edTPA-arts는 음악예비교사 평가과정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교실현장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음악을 들음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음악의 흐름을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며, 노래나 악기 연주를 통해 음악적 표현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음악 수업을 실행할 능력이 학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실현장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발휘되고 평가될 수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현행 교사임용시험이 201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사신규채용 개선방안’에 따라 교직 및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등에 대하여 논술하는 1단계와 심층면접, 수업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능력 평가 등의 2단계 전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며, 이론적 지식 보다는 수업실연 능력 및 인성을 강조한 결과로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임용시험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은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며 수업에 참여시키는지, 교사의 수업을 통해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렵다. 즉 이와 같은 수업실연은 학생이 아닌 교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며, 수업전문성의 주요요소로 부각되어 온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실천을 통한 반성적 사고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edTPA-arts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수업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이나 반성적 기록물과 같은 포트폴리오 중심의 질적 평가 방안 등 보다 실제적으로 현장 중심의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장적합성을 고려한 평가를 위해서는 교사교육이 실제적인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학에서의 이론교육과 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석문주(2008)는 “대학에서의 강의와 실습의 연계성, 임상경험을 위한 효율적인 수업계획과 운영, 교수의 현장에의 참여, 현장교사의 대학에서의 역할 부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은식(2006)은 “현장음악교사, 음악전공교수, 음악교육교수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과의 경우, 사회과 수업전문성을 위한 대학-학교간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김경은, 2010)하는 등 대학과 교육현장의 연계를 위

한 노력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학교현장 간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긴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장중심의 예비교사교육-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경험의 확보와 함께 대학-학교 간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등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둘째, edTPA-arts는 음악예비교사 평가과정이 학생의 배움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예비교사의 수행의 결과로서 기대하는 학생의 배움은 측정가능한 점수와 같은 성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이루어낸 성취를 의미한다. 특히 edTPA-arts는 장애학생 등 별도의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적합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이를 위하여 상·중·하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3개의 학생 예시작품과 이에 대한 피드백 자료, 장애학생 등 별도의 필요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기록한 정보,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 자신이 수립한 전략의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배움에 대한 예비교사 수업의 효과 및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실연을 평가하는 것은 교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학생의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수업실행의 결과로서의 학생의 배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평가 체제를 갖추고, 여기에서 도출된 학생의 배움과 관련된 자료들을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edTPA-arts는 음악예비교사 평가과정이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질 것을 시사한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의 효과적 전달을 넘어, 지식의 재구성 과 의미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하고 다면적인 수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실용적 언어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어려운 음악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음악수업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음악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전문성 요소로서의 반성적 사고가 수업비평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부각되어왔으며, 이와 함께 반성적 저널쓰기, 내러티브 탐구 등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등음악교사를 위한 반성적 실천 기반 음악교육실습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정재은, 2013) 등이 연구되어왔다. 이와 같은 반성 또한 실행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reflection-in-practice)

현장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dTPA-arts에서는 ‘계획-수업-평가’의 각 과정을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쓰기는 수업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2013년에 최종 개발된 edTPA-arts은 2014년부터 미국의 선도적인 주들을 중심으로 시행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과다한 과제와 복잡한 선발 절차,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으로 인한 교사교육의 획일화 가능성 등이 비판의 이유이다. 본고는 edTPA-arts의 이러한 측면들은 논외로 하였으며, 예비교사의 수행평가를 위한 국가공통의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과제를 자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위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역동적인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음악예비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반성적 사고력을 제고·평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도 깊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은 (2012). 사회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학-학교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육연구**, 23(3), pp. 45-69.
- 김찬중 (2009). 교사 연수와 수업 전문성 발달. **교육연구와 실천**, 75, pp. 67-90.
- 석문주 (2008). 미국음악교사기준의 새로운 변화. **음악교육연구**, 34, pp. 25-57.
- 오지향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실연 실태조사. **음악교육연구**, 41(1), pp. 191-213.
- 이정표, 이주영, 권동택 (2013). 주요국 초등교사 선발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3(1), pp. 81-101.
- 이화식 (2012). 음악교사 양성 제도와 임용 현황에 따른 음악과에서 교직과정 이수 경험 연구. **교원교육**, 28(1), pp. 247-271.
- 임연기 (2013).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직과목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0(4), pp. 189-213.
- 임찬빈, 이경언 (2006). **수업평가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재은 (2013).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반성적 실천 기반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42(4), pp. 147-165.
- 조성기 (2010). 교실친화적 음악교사 양성 및 임용 강화 방안. **교원교육**, Vol.26(4), pp. 85-102.
- 조호제, 윤근영 (2009). 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수업전문성의 차이 분석. **열린교육연구**, 17(2), pp. 183-207.
- 최은식 (2006). 미국음악교사 양성제도의 새로운 동향. **음악과 문화**, 15, pp. 59-77.
- Eisner, E. W.(1998). *The Enlightened Eye*. Prentice Hall. Inc.
- Korthangen, F.A.J 외 공저(조덕주 외 공역, 2007). **반성적 교사교육: 실제와 이론**. 서울: 학지사.
- Hildebrandt, S. A. & Swanson, P. (2014). World Language Teacher Candidate Performance on edTPA. *Foreign Language Annals*, 47(4), pp. 576-59.
- Sato, M. (2014). What Is the Underlying Conception of Teaching of the edTPA?.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65(5), pp. 421-434.
- SCALE (2013a). *edTPA K-12 Performing Arts Assessment Handbook*. CA: Stanford University.

- SCALE (2013b). *edTPA Assessment Handbook*. CA: Stanford University.
- Schön, D.(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NY: Basic Books.
- Schulman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pp. 1-23.
- www.edTPA.com
- <http://edtpa.aacte.org>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tents of edTPA K-12 Performing Arts

Eun-A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contents of edTPA K-12 Performing Arts [edTPA-arts] developed for pre-service 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 in America and to extract suggestions for pre-service teacher assessment in Korea.

edTPA is a nationally available performance assessment for pre-service teachers, which has recently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across America. Specifically, edTPA-arts was developed to measure pre-service teachers' readiness to teach K-12 Performing Arts (music · dance · theater). It is composed of three tasks: planning(planning for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struction(instructing and engaging students in learning), assessment(assessing student learning). Students learning is placed in the center of this three-step teaching cycle. Upon completion of the three tasks, pre-service teachers have to submit artifacts and commentaries. Artifacts include authentic works like video clips of their teaching, lesson plans, assessment materials, student sample works, etc. Commentaries are written to explain and reflect on their own teaching and student learning.

From edTPA-arts, suggestions for pre-service teacher assessment in Korea can be extracted as follows: First, pre-service teacher assessment could be based on authentic works in the classroom for assessing what pre-service teachers actually do in authentic teaching situation. Second, it could focus on student learning: pre-service teachers could demonstrate impacts on student learning as the results fo classroom process. Third, it could put emphasis on developing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thinking as a basis for improving teach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edTPA, pre-service teacher assessment, teaching professionalism, practical knowledge, reflect thinking

투고일: 2015년 5월 29일, 심사(수정): 7월 14일(7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31일